

‘벤투호 황태자’ 황인범 “모두가 클린스만호 황태자 되길”



축구대표팀 황인범이 22일 경기 파주시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표팀은 24일 콜롬비아, 28일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있다.

벤투호 시절 ‘황태자’로 불렸던 축구대표팀 간판 미드필더 황인범(울림피아코스)이 클린스만호에선 모든 선수가 황태자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인범은 22일 파주시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

클린스만호 1기 합류 “어떤 훈련들 준비 돼 있을지 기대” “늘 해왔던 공수 연결고리 역할, 감독님이 좋게 봐줄 것”

(NFC)에서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이틀 훈련을 했고, 첫날은 공 돌리기와 회복 등 가벼운 훈련을 주로 했다. 어제 선수가 다 모이지 않아 전술보다 가벼운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대표팀과 다른 점을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 다만 분위기를 좀 더 편하게 해주시려는 게 느껴져서 선수들도 잘 준비하고 있다”며 “어떤 훈련들이 준비돼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고, 잘 따라가서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카타르월드컵에서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이 지휘한 대표팀의 중원 핵심으로 16강 진출을 이끈 황인범은 지난 20일 파주NFC에 입소해 클린스만호 1기에 합류했다.

벤투호 시절 ‘황태자’로 불리며 빌드업 축구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던 황인범은 ‘공격 축구’를 외친 클린스만호에서도 엔진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범은 “황태자란 표현이 사실 안 좋아

던 시기에 불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며 “어떤 감독님이 오시든 클럽이나 대표팀에선 한두 명의 선수가 그런 표현을 얻는다. 이번에도 누군가 (황태자란) 표현을 얻을 텐데 좋게 생각하고 노력하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님이 어떤 한 선수를 믿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선수가 됐든 황태자라는 표현을 얻을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황인범은 ‘황태자’ 수식어가 오히려 동기부여를 줬다고 했다.

그는 “내가 못 하면 개인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감독님이나 코치진까지 비난의 화살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훈련장이나 경기장에서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됐다”고 했다.

자신을 제외하고 클린스만호의 새 황태자는 누가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모든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님의 황태자가 될 수 있도록,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한 선수가 아닌 팀으로 잘 맞춰서 준비한다면 여기 모인 모든 선수가 황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과 개인 면담을 갖지는 않았다는 황인범은 “아직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날이 많아 지도록 노력하고, 그 안에서 감독님이 원하는 부분을 잘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늘 해왔던 축구를 한다면 감독님도 좋게 봐주실 것”이라며 “공수 모든 상황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주고 싶다”고 힘써 말했다.

코치진이 포르투갈에서 독일로 바뀐 것에는 “(베르너 로이타르)피지컬 코치의 워밍업 부분 등이 이전 (포르투갈)코치와 조금 다르다”며 “양국의 피지컬 워밍업을 배울 수 있어 선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약 3개월 만에 월드컵 멤버들과 재회한 황인범은 “오랜만에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잠전에 (나)상호가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더 글로리’ 흥행을 내다라. 대표팀 인사이드캠을 보고 평가해달라”며 웃었다.

2018년 9월7일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2-0 승)에서 A매치 데뷔한 황인범은 카타르월드컵 16강 브라질전(1-4 패)까지 A매치 41경기에서 출전해 4골을 넣었다.

지난해에는 그리스 프로축구 명문 올림피아코스로 이적해 유럽 무대에서도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다.

소속팀이 2022~2023시즌 그리스 슈퍼리가 엘라다 정규리그 3위로 플레이오프(PO)에 진출한 가운데 황인범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2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황인범은 “러시아, 미국을 거쳐 그리스 리그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며 “축구는 물론 인생에서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걸 느꼈다. 그런 시간들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고 했다.

또 “리그마다 특징이 있고 한국보다 피지컬적으로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나만의 장점을 살리는 고민을 했고,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콜롬비아와 3월 A매치 첫 경기에서 황인범은 소속팀 동료인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대결한다.

황인범은 “평가전이 결정되고 소속팀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한국이 이길 것 같더라”며 “하메스도 이전에 한국과 두 차례 A매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한국 선수들이 너무 빠르고 지치지 않게 90분을 뛰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메스의 장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 수비수들에게 하메스에 관해 이야기해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

프로축구 K리그1 라운드 베스트11, 승격팀 광주·대전이 절반

대전, 2승2무 무패 행진 3위 등극 광주, 인천 5-0 대파...4명 배출

프로축구 K리그1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선수들을 뽑는 라운드 베스트11을 2부에서 승격한 광주FC와 대전하나시티즌이 휩쓸었다.

21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하나원큐 K리그1 2023 4라운드 베스트11에는 광주 선수 4명, 대전 선수가 2명 포함됐다. 11명 중 6명이 광주와 대전 소속이다.

공격수로는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시즌 첫 헤트트릭을 작성한 아사시가 뽑혔다.

미드필더에는 인천전에서 1골 1도움으로 활약한 광주 엄지성과 수원삼성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대전 이진현이 포함됐다.

수비수에는 광주 안영규와 대전 김민혁이 뽑혔다. 골키퍼에는 페널티킥을 막아낸 광주 김경민이 선정됐다.

이번 베스트11 선정 결과는 광주와 대전이 일일 승격팀 돌풍의 결과물이다.

K리그1 구단들에게 밀려 강등권을 헤맬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광주와 대전은 승격 직후부터 기존 1부 구단들을 격침하며 축구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대전은 2승2무로 개막 무패를 달리며 리그 12개팀 중 3위를 달리고 있다. 광주는 2승2패

로 5위에 올라 있다.

대전은 승격 후 첫 경기인 개막전에서 2021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패했던 강원FC를 상대로 2-0으로 설욕을 했다. 2라운드 인천전에서는 난타전 끝에 3-3으로 비겼다. 대전은 3라운드에서 초반 선두권을 달리던 포항과 0-0으로 비긴 뒤 4라운드에서 수원삼성을 3-1로 꺾었다.

광주는 개막전에서 수원삼성을 1-0으로 꺾으며 파란을 일으켰지만 이후 FC서울과 전북 현대에 0-2로 졌다. 하위권으로 처지는 듯 했던 광주는 인천을 5-0으로 대파하며 축구계를 놀라게 했다.

이슬비기자



청년부 우승 새바람FC

전남드래곤즈, 지역 축구 동호인 위한 제17회 미르기 축구대회 성황리 종료

전남드래곤즈가 주최하고 광양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제17회 미르기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광양시 마동 축구전용구장에서 펼쳐진 제17회 미르기 축구대회는 전남드래곤즈가 지역 축구 동호회를 위해 매년 주최하는 대회다.

총 20개팀 400여명이 참석한 ‘제17회 미르기 축구대회’는 장년부, 중년부, 청년부로 나뉘어 있으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운영됐다.

축구발전과 지역 화합의 장을 위해 개최된 제17회 미르기 축구대회는 아마추어 축구 동호인 담지않게 박진감 넘치는 축구대회라고 호평을 받았다.

이번 대회 장년부에서는 동광양FC가 우승은 차지했다. 준우승으로는 양지FC, 공동 3위로는 삼전강FC와 새바람FC가 차지했다.

중년부 우승은 동백FC, 준우승은 상야FC 그

리고 공동 3위로 삼전강FC와 새바람FC 차지하였다. 청년부 우승은 새바람FC, 준우승은 새바람FC, 공동 3위로는 가운FC와 남부FC가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시장, 서동용 의원, 이광수 전남드래곤즈 사장, 박승기 광양시 축구협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역 축구 동호인들의 화합의 장을 광양시 축구협회와 전남드래곤즈가 함께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지역시민들을 위한 문화 발전과 화합의 자리가 더욱 많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광양은 한국축구를 대표하는 전남드래곤즈와 함께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제41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서 함평선수단 ‘선전’

은메달1개·동메달3개 획득

함평군 레슬링 협회는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개최된 제41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함평군 선수들이 은메달1개 동메달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함평군 레슬링협회에 따르면 함평중 정현우 선수가 그레코로만형 51kg에 출전 동메달을 나준우 선수는 그레코로만형 92kg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기쁨을 토했으며, 함평학다리고 나중현선수는 그레코로만형 130kg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전했다.

일반부에서는 함평군청 레슬링팀이 해체되고 새롭게 창단된 함평군 레슬링 협회로 소속된 선수들도 메달 획득 소식을 전해 왔다. 김가빈(그레코로만형 63kg) 선수가 은메달을, 나명길(그레코로만형 72kg)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거는 영예를 안음으로 레슬링 메카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함평군 레슬링 협회에서는 오는 4월 해남에서 열리는 제1회 코리아헤럴드 배 전국 레슬링대회에 레슬링의 메카인 함평의 명성을 걸고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함평중, 함평학다리고, 함평군레슬링협회 소속 선수

들은 오늘도 훈련에 매진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밝히며, 함평군 레슬링협회와 후원회에서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선전한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함평레슬링의 명성을 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오타니 MVP 등극...WBC서 세계 최고 재확인

최다안타 공동 1위·다승 공동 1위...결승전 1점차 상황에서 무실점 마무리

일본 야구대표팀 오타니 쇼헤이(29·LA 에인절스)가 세계 야구팬들에게 다시 한 번 자신의 진가를 확인시켰다.

오타니는 2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제5회 월드 베이스볼클래시(WBC) 결승전 미국대표팀과의 경기에서 1점차 세이브를 기록했다. 눈부신

활약을 펼친 오타니는 대회 MVP에 등극했다.

2006년 제1회 대회와 2009년 2회 대회를 제패한 일본은 14년 만에 다시 한 번 세계 정상에 등극했다.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개막으로 인해 당초 8강까지만 뛰고 소속팀 에인절스에 합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WBC에 더 뛰기 위해 의지를

발태했고, 결승전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다.

오타니는 7경기에 출전해 0.435(23타수 10안타)의 고타율을 기록했고, 1홈런 8타점 9득점을 올렸다. 대회 최다안타, 득점 부문에서 공동 1위에 올랐다.

투수 오타니로도 대단한 활약을 펼쳤다.

3경기(9%이닝)에 등판한 오타니는 2승 1세이브에 평균자책점 1.86의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피안타율도 0.152, WHIP(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0.72에 불과했다.

WBC에 출전한 선수 중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고, 다승 공동 1위로 대회를 마쳤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을 주장을 낙점한 가운데 손흥민이 21세기 들어 한국 성인대표팀에서 역대 최장기간 주장을 맡은 선수가 될 전망이다.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 훈련을 지휘하던 지난 21일 손흥민의 주장 낙점 소식이 전해졌다. 손흥민 본인은 당일 인터뷰에서 아직 주장 선임 여부를 모른다고 답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주장은 손흥민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21세기 들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가장 오래 주장 완장을 차는 선수가 될 전망이다.

21세기 들어 첫 주장을 맡은 홍명보는 1998년부터 2002 한일 월드컵까지 약 4년 간 완장을 차다. 홍명보의 대표팀 은퇴 후 유상철, 이운재, 김남일을 거쳐 박지성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장을 맡았다.

박지성의 대표팀 은퇴 후 박주영, 곽태휘, 하대성, 구자철, 이창용, 이근호, 차두리, 김영권, 권순태, 장현수 등을 거쳐 손흥민이 2018년부터 주장이 됐다.

손흥민은 안와골절 수술 후 성치 않은 몸에도 벤투호를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이끌었다.